

은혜로 열심히

Work Hard in Grace

고린도전서 15:10

그리니치 한인교회

2013년 5월 19일 설교

그러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옛날이야기 하나

제가 고등학교에 다닐 때는 월요일마다 주초고사라는 게 있었습니다. 월요일 아침에 시험을 치니까 주말에 놀지 말고 공부하라는 소리지요. 교회 다니는 학생들한테는 참 불리합니다. 그 때만 해도 많은 교회가 주일을 안식일처럼 지켰습니다. 일하러도 안 가지만 돈도 안 쓰고 학생은 공부도 안 했습니다. 저같이 하루 종일 교회에서 살다시피 한 사람도 공부를 안 하니 주일에는 시간이 남습니다. 그래서 뭘 합니까? 라면 끓여먹으면서 텔레비전을 봅니다. 지금 생각하면 우습지요. 텔레비전 보느니 공부를 하지..... 공부를 싫어한 건 아닌데 믿음이라기보다 오기로 안 했던 것 같습니다.

어느 월요일 아침 국어 시험에 한자 읽기 문제 하나하고 쓰기 문제 하나가 나왔습니다. 읽는 건 “속죄”였는데 저 말고도 두어 명 맞춘 아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용서”를 한자로 쓴 사람은 저밖에 없었습니다. 반에서 말고 전교에서 저 혼자였습니다. 저도 사실 이틀 전까지는 속죄고 용서고 몰랐습니다. 시험 전날 주일 예배 시간에 알았습니다. 제 성경책이 한자성경이라서 한자로 쓸 수 있는 낱말은 모조리 한자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주일 낮 예배 설교 본문이 에베소서 4장 끝부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 치심을 받았느니라.” 구속이 나오지요? 속 자만 알면 속죄는 쉽습니다. 두 절 뒤는 이렇습니다.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용서가 두 번이나 나옵니다. 제가 그 때 설교를 열심히 적었는데 노트에다가 용서, 용서, 하고 연습을 좀 했습니다. 한자공부를 하면서 설교도 열심히 들었는데 설교 내용은 당연히 기억이 안 납니다.

어쨌든 성경 덕에 목에 힘을 좀 줬습니다. 그 때는 그냥 쉽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말씀 순종하려고 주일에 공부 안 하고 열심히 예배를 드렸더니 하나님이 다른 사람 다 틀린 문제를 나 혼자만 맞게 해 주셨구나. 재수는 분명 아니지요? 그러니 달리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사람들에게 이야기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면 하나님이 이렇게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도와주신다,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생각보다 복잡한 문제

그런데 살면서 보니까 문제가 그렇게 생각만큼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월요일 아침에 시험을 칩니다. 주일 하루 종일 공부한 사람하고, 공부는 안 하고 라면 먹으면서 텔레비전을 보았지만 주일 예배에 참석한 사람하고, 누가 성적을 더 잘 받아야 됩니까? 이건 공의의 문제입니다. 물론 날 때부터 머리가 남보다 좋은 사람이 있으니 완벽한 공평을 따지기는 어렵습니다. 좋은 환경을 타고 난 학생하고 부모가 병에 걸려 수발하고 돈도 벌어가면서 학교를 다닌 학생하고 나란히 놓고 비교를 하면 안 되겠지요. 그렇지만 시험이라는 건 적어도 평소에 얼마나 공부를 했느냐 하는 걸 확인하는 제도 아닙니까? 하나님은 차별 안 하십니다. 악인에게도 의인과 똑같이 햇별을 주시는 우리 하나님입니다 (마 5:45). 그러니 교회에 안 다녀도 공부를 열심히 한 학생이 교회 다니면서 농땡이 치는 학생보다 좋은 성적을 받는 게 맞습니다.

그 무렵 교회에서는 주일에 공부하는 대신 교회에 나오면 하나님이 그 날 공부 열심히 한 학생들보다 성적을 잘 받게 해주신다고 가르쳤습니다. 안 믿는 사람보다 모든 면에서 뛰어나게 해 주는 게 신앙이라는 거지요. 예수 믿는 학생이 공부를 잘 해야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말을 불신자보다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된다는 건 싹 무시하고 대충 해도 하나님이 성적을 잘 주시는 걸로 오해하게 만들었습니다. 예수 믿고 삼년 안에 집 못 사면 엉터리로 믿은 거라고 어느 기도원에서 설교도 하던데, 예수 믿고 전교 십 등 안에 못 들면 그것도 가짜 믿음이겠지요?

그런데 그건 좀 불공평하다 싶었는지 과학적인 설명도 등장했습니다. 두뇌 연구 이야긴데 누가 연구한 건지 모르지만 하여간 교회에서만 들은 이야기입니다. 사람 머리는 계속 쓰는 것보다 정기적으로 휴식을 취해야 효과가 좋아진다고, 그러니 일주일 내내 공부하는 학생보다 옛새 공부하고 하루 푹 쉬는 학생이 두뇌를 더 효과적으로 써 결과적으로 성적도 더 잘 나온다,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옛새 동안 열심히 일하고 일곱째 날에는 쉬라 하신 게 다 이유가 있다 그런 이야기지요.

교회 다니는 학생들이 혜택 좀 봐도 과학적인 근거가 있으니 불공평한 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럼 교회 다니는 학생들이 좋은 대학을 싸쓸이를 했느냐 하면 그건 아닙니다. 원인이 뭘까요? 주일 하루 교회에 와 폭 쉬는 건 제가 제 눈으로 확인을 했으니까 아마 나머지 옛세에 무슨 문제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누가 얼마나 하나?

세상사는 건 공부하는 것보다 훨씬 복잡합니다만, 일단 좀 쉽게 공부로 이야기를 풀어 봅시다. 예수 믿는 학생이 공부를 합니다. 나름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으니까 기도도 합니다. 공부할 때는 “하나님 공부 잘 하게 해 주세요” 하고 시험을 칠 때는 “하나님 시험 잘 보게 해 주세요” 합니다.

공부를 제대로 못 하고 시험을 볼 때가 있지요? 그럴 때도 성적은 잘 나오게, 적어도 시험을 망치지 않게 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이유가 참 좋아요. 하나님, 제가 예수 믿는 거 온 동네가 다 아는데 성적이 안 나오면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되니까 일단 성적은 좋게 주세요. 하나님 영광이 중요하면 공부를 열심히 해야지 제 할 일은 앓고 하나님한테 떠맡깁니다. 하나님 영광을 빙자해 제 잇속을 챙기는 거지요.

공부할 때 드리는 기도는 좀 낫습니다. 남들 다섯 시간 공부한 효과를 한 시간에 보게 해 주세요. 이것도 욕심이지만 그래도 공부는 하니까 애교로 봐줄 수도 있지요. 그런데 이것도 이유는 비슷합니다. 남만큼 공부하기 싫어서가 아니라 교회 생활이 바쁘니까 그걸 좀 참작해 달라는 겁니다. 저도 비슷한 기도를 한 기억이 나는데 그 당시 제 주일생활을 보면 지나친 요구도 아닙니다. 주일은 새벽기도부터 갑니다. 오전에는 교회 어른들하고 뒷산에 올라가지요. 두어 시간 걸립니다. 돌아와서는 주일 낮 예배, 그러니까 어른 예배에 참석하고 점심 먹고는 중고등부 예배를 드립니다. 이어 중고등부 성가대 연습을 하고 그런 다음 잠시 라면 먹으면서 텔레비전을 보고 저녁에는 저녁예배를 드립니다. 중고등부 성가대가 찬양을 하지요. 마친 다음 찬양 연습을 조금 더 하고 그런 다음 중고등부 기도회를 또 합니다. 새벽 다섯 시에 시작된 주일이 밤 열시가 되어야 끝이 납니다. 제가 고삼 때는 아침 공부도 조금 했는데 월요일 아침에는 워낙 피곤해서 일어나 학교 가기 바쁩니다. 파김치가 되어 학교에 가면 뭐가 기다리고 있지요? 예, 주초고사.

예수 안 믿는 학생이 백 점을 받으면 그거 누가 한 겁니까? 다 제가 한 거지요. 혹 대충 썼는데 맞았다면 그건 재수입니다. 재수도 내 재수지 남 재수 아닙니다. 예수 믿는 학생이 백 점을 받으면 누가 한 겁니까? 공부도 하고 기도도 했습니다. 나도 열심히 했지만 하나님이 또 도와 주셨습니다. 백 점 가운데 누가 얼마나 한 겁니까? 열 문제 가운데 아홉 개는 내가 답을 알고 썼으니 내가 했고 한 문제는 몰라서 대충 썼는데 맞았으니 하나님이 도와주신 겁니까? 아니면 알고 썼든 모르고 썼든 하나님하고 내가 오십 대 오십으로 힘을 합쳤습니까? 기도는 많이 못 하고 공부만 많이 했다면 내가 팔십, 하나님이 이십, 공부를 제대로 못 해서 정말 간절하게 하나님께 매달렸더니 백 점을 주시더라 했다면 하나님이 구십, 내가 십 그렇게 됩니까?

모든 게 하나님 은혜

바울을 보겠습니다. 복음 전하는 일에 평생을 바친 사도 바울의 인생을 한 낱말로 줄이면 뭘니까? 은혜지요. 나의 나 된 것도 은혜고, 내가 평생을 바쳐 해 온 일도 은혜입니다. 무슨 은혜입니까? 나를 주 예수 안에서 구원해 주시고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특히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하며 주 예수와 맞서 싸우던 나 아닙니까? 그런 나를 영원히 지옥에 처넣으셔도 되는데 별은커녕 다 용서하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나를 일꾼으로 불러 주셔서 평생을 하나님의 복음 전하는 일, 사람으로 태어나 할 수 있는 가장 값지고 보람된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이걸 은혜 말고 다른 무슨 말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은혜는 언제나 구원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저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행 15:11). 구원받은 우리는 다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바울은 태어나기 전부터 은혜를 받았다 고백합니다.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 (갈 1:15).

사도가 된 것도 은혜입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엡 3:7; 롬 1:5). 일 맡은 게 왜 은혜입니까? 자신을 돌아보면 압니다. 자격이 안 되는데 자격이 된다 여겨 주시니 은혜입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딤후 1:12).

이 은혜가 있었기에 맡기신 일도 잘 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맡기신 일은 은사로 감당합니다. 그런데 그 은사가 은혜로 주신 것입니다 (롬 12:6). 그러니 맡은 일을 잘 하게 된 것도 오직 은혜입니다. 특히 이방인에게 복음 전한 일이 다 하나님 은혜 덕에 가능했다 합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인하여 더

옥 담대히 대강 너희에게 썼노니,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무를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그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심직하게 하려 하심이라” (롬 15:15-16).

구원도, 직분도, 한 일도 다 은혜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결론이 뭐니까? 오늘 본문이지요? 은혜를 세 번 거꾸 고백합니다. 은혜 아닌 건 없습니다. 백 퍼센트 은혜입니다.

참 열심히 산 인생

그런데 본문을 잘 보면 은혜가 아닌 것 같은 표현이 하나 나옵니다.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다.” 바울 제가 했답니다. 내가 남보다 훨씬 많이, 정말 우리가 될 정도로 수고를 많이 했다. 내가 했으면 은혜가 아니지요? 방금 은혜라 해 놓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아닌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은 정말 일 많이 했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신약성경 거의 절반을 썼지요. 기독교 복음의 체계를 세운 사람입니다. 소아시아 지역에서 시작해 유럽까지 복음을 전하고 나중에는 제국의 심장부인 로마까지가 복음을 전했습니다. 로마가 기독교 국가가 되게 만든 일등공신 아닙니까? 수십, 수백 명도 못 할 그 엄청난 일을 바울이라는 한 사람이 다 했습니다.

은혜 받았지요.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하지만 바울의 행적을 살펴보면 하나님하고 바울이 같이 한 게 아니고 바울 저 혼자 다 한 것 같습니다 (고전 9:1-27). 복음을 잘 전하려고 바울은 결혼도 안 했습니다. 재정 후원이 없을 때는 돈을 벌어가면서 했습니다. 하나라도 더 전도하려고 유대인한테는 유대인이 되고 이방인에게는 이방인이 되고 약한 자에게는 저도 약한 모습을 보이며 전도했습니다. 달리기를 하는 사람처럼 그렇게 열심히 달렸습니다. 목숨까지 걸었습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함에는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행 20:24).

“마치려 함에는.....” 완성하겠다는 말입니다. 제가 끝까지 책임지겠다는 말이지요. 내가 하다 말면 하나님이 다른 사람 시키시겠지. 물론 그렇지요. 하지만 바울은 할 수 있는 최대한 제가 하려고 애썼습니다. 바울은 박해를 많이 받았습다. 돌에 맞아 죽을 뻔했고 서른아홉 번 때리는 태형을 다섯 번 당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한 번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다. 왜 안 도와 주십니까, 하지 않았습다. 은혜로 했다면서요? 그런데도 수고도 내가 했고 핍박도 내가 받습다. 하나님 왜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안 했습다. 내가 책임집니다. 내가 시작한 일 내가 계획하고 내가 추진하고 결산도 내가 하고 책임도 내가 집니다. 그래서 마가 요한도 못 데려가겠다 한 겁니다. 바나바랑 싸운 뒤에도 “에이 치우자” 않고 실라를 선택해 다시 선교를 떠납다. 책임감이 참으로 강한 사람입니다. 웬만하면 “하나님이 좀 해 주세요” 해도 될 것 같은 순간에도 철저히 제가 하겠다 했습다. 마치 하나님이 안 챙겨 주시는 것처럼, 안 돌보시는 것처럼, 나 혼자뿐인 것처럼, 그렇게 악착같이 들러붙었습니다.

바울의 인생 회고문이 있지요?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딤후 4:7). 인생이 싸움이고 달리기였습니다. 은혜도 은혜지만 바울의 삶은 백 퍼센트 노력이고 책임이고 희생이고 백 퍼센트 바울의 수가 낳은 열매였습니다.

은혜와 수고가 함께

바울이 공부할 때 “하나님 남 하는 것 몇 배의 효과를 보게 해 주세요” 했습니까? “하나님 공부는 제대로 못했지만 시험은 잘 보게 해 주세요” 했습니까? 아니지요. 성적이 좋아야 하나님 영광이 된다는 소리도 안 했습다. 기도 물론 했지요. 열심히 했습다. 하지만 공부로 치자면 남들 잘 때 안 자고 남들 놀 때 안 놀고 공부했습니다. 나중에 고백은 “다 은혜였다” 하면서도 정작 일을 할 때는 “나 아니면 안 된다, 내가 안 하면 큰일 난다” 그런 절박한 심정으로, 정말 철저한 책임감으로 일을 했습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줄 아는 사람이 왜 그랬습니까? 은혜라 해 놓고 왜 그렇게 정신없이 수고했습니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게 은혜인 줄 알았기 때문입니다. 은혜가 그렇게 하는 줄도 알았습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 지난 날이 너무나 부끄러워, 지금 나에게 남은 시간은 일 분 일 초도 허비할 수가 없습니다. 죄인 가운데 가장 못된 죄인인 나를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일까지 맡겨 주셨습다. 피곤하다는 말이 입에서 어떻게 나오겠습니까? 채찍에 맞아 피가 흐르고 돌에 맞아 죽을 뻔해도 불평 하나 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다른 사람들에게 뭐가 가르칩니까?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심이라” (빌 1:29).

하나님의 구원을 설명하면서 바울은 분명히 말했습니다.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

면 은혜가 은혜 되지 못하느니라” (롬 11:6). 은혜면 행위가 아니고, 행위면 은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셨으면 내가 한 게 아니고 내가 했으면 하나님이하신 게 아니라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생애를 보면 거꾸로 돌아갑니다. 은혜로 시작된 새 삶이기에 바울의 행위가 가능했습니다.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바울도 할 수 있었습니다. 바울이 그렇게 죽을 힘을 다해 수고했기 때문에 하나님 은혜도 분명하게 나타났습니다. 바울이 안 했더니 하나님이 은혜로 대신 해 주시더라, 이게 아니고, 바울이 죽을 힘을 다해 수고한 거기 하나님의 은혜, 바울을 구원하시고, 사도로 삼으시고, 능력도 주신 그 은혜가 그대로 나타났습니다. 하나님 은혜는 말만의 은혜가 아니고 능력의 은혜, 살아 움직이는 은혜였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였다 고백하는 이 본문에서 바울은 제가 그 어느 누구보다 수고를 많이 했다고 당당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요? 그렇게 수고한 게 하나님 은혜를 가리는 게 아니라 오히려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수고했기 때문에 하나님 은혜가 드러나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그걸 바울이 본문에서 뭐라고 표현합니까?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않았기에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다.” 그 많은 수고가 결국 내가 받은 은혜의 능력이었다는 겁니다. 은혜가 있기에 수고가 있고 수고가 있어서 은혜가 드러났습니다.

은혜도 수고도 백 퍼센트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바울의 수고입니까? 둘 다지요. 하나님 은혜도 백 퍼센트, 바울의 수고도 백 퍼센트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어떻게 살았다고요? 오늘 설교 제목이지요. “은혜로 열심히.”

우리는 하나님의 예정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창세전에 우리를 당신 것으로 택하셨다고 믿습니다. 그 예정은 지금도 그대로 실행되고 있기 때문에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사냥꾼에게 안 잡힙니다. 예수 믿는 우리 일합니다. 가정에서도 밥, 설거지, 빨래, 청소, 이런 일이 있고 아이들이 있으면 아이들도 돌보고 키워야 됩니다. 직장에서도 일이 있지요. 물건도 팔아야 되고, 서류도 작성해야 되고, 사람도 만나야 되고, 연구도 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는 작은 일 하나까지 하나님 예정에는 다 들었습니다.

예정을 믿는 우리는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내일 중요한 시험이 있습니다. 하나님 예정에는 내 점수가 이미 들어있겠지요? 공부한다고 하나님 예정이 달라지겠습니까? 맹탕 놀아도 그 점수는 이미 때 논 대상 아닙니까? 아닙니다. 앞날이 정해져 있다고 믿는 건 예정이 아니고 운명론입니다. 케 세라 세라, 될 건 된다. 내가 뭘 어떻게 하든 일어날 일은 일어나고 만다는 게 운명론입니다. 그건 하나님의 예정과 전혀 다른 겁니다.

어떤 게 은혜입니까? 은혜는 내 속에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예정은 분명히 있지만 그게 뭔지 우리는 모릅니다. 예정을 믿는 사람은 그럼 어떻게 삽니까? 은혜로 열심히 삽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내 책임을 함께 믿습니다. 뭔지는 모르지만 내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내 책임을 다하면 그 결과가 바로 하나님이 예정해 두신 것과 같다는 말입니다. 내 속에서 역사하지 않는 은혜라면 그건 가짜일 것입니다. 내 책임이 따르지 않는 은혜는 무늬만 은혜지 아무런 힘도 지해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로 하여금 생각하게 하고, 감격하게 하고, 움직이게 합니다. 정신 바짝 차리고 열심히 살게 합니다. 그래서 내 책임을 완수하게 합니다.

내가 학생이라면 열심히 공부해야지요. 내 책임입니다. 주일을 교회에서 보냈으면 평일에 더 열심히 공부해야지요. 공부할 때도 하나님 은혜 안에서 하고 시험도 하나님 은혜로 칩니다. 그래서 공부도 죽어라 열심히 하고 시험을 칠 때도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정신 바짝 차리고 공부한 것 잘 생각하면서, 실수 안 하게 조심조심 칩니다. 그렇게 해서 나온 성적이라면 그건 하나님 예정에 들어 있던 바로 그 성적입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자

예수 믿는 사람이 열심히 살아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엡 5:16). 주 예수를 모르는 사람이라면 열심히 살든 말든 시간은 늘 악합니다. 죄에 찌든 시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은혜 받은 내가 열심히 살면 그렇게 사는 시간은 악한 시간에서 거룩한 시간으로 바뀝니다. 하나님 은혜가 내 삶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는데 그 은혜가 내 삶에 능력으로 나타납니다. 내가 손 놓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은혜가 대신 알아서 합니까? 아닙니다. 악한 세월이 마냥 흘러갑니다. 내가 하지 않으면 하나님 은혜도 내 속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술로 속을 채우지 말고 성령으로 속을 가득 채우라 하셨습니다. 술도 성령도 우리 안에 오면 우리를 장악합니다. 그런데 술이 장악하면 내가 생각도 판단도 못 하고 책임도 못 집니다. 술에 취해 하는 나쁜 일, 어리석은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인간의 존엄성을 짓밟는 주범이 술입니다. 그런데 성령이 나를 채우시면 정신이 또렷해지고, 판단력도 좋아지고, 열심히 살게 되고, 책임감도 강해집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은 성령께 다 맡기고 나는 뒷짐 지고 가는 게 아니라 성령

께 백 퍼센트 다 맡기면서 내가 또 백 퍼센트 책임을 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 이제는 제대로 생각하고, 올바르게 판단하고, 나를 드러 주께 전적으로 헌신합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 가운데 열심히 사는 사람 많습니다. 악착같이 삽니다. 왜 그렇습니까? 도와줄 사람이 없으니 그렇습니다. 내가 다 책임져야 하니 잠시도 마음을 못 놓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는 그럼 왜 열심히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으니 열심히 삽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곁에서 도우시니 신이 나서 더 열심히 합니다. 은혜를 몰랐으면 대충 할 건데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너무나 감사하고, 이 못난 나에게 하나님이 가정에서 남편으로 아내로 부모로 자녀로 할 일을 맡겨 주신 것이 참으로 감사하고, 직장까지 주셔서 거기서 일해 돈도 벌고 또 보람도 느끼게 하시니 고마워 대충 할 수가 없습니다.

다시 옛날 이야기

남들 못 맞춘 한자 문제를 저 혼자 맞추었지만 지금 생각해도 하나님이 저한테 부당한 특혜를 주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제가 평소에 한자 공부를 남달리 열심히 했거든요. 제가 고등학교 국문과 출신이라고 떠들고 다닙니다만 그 때 국문과는 한자도 많이 했습니다. 하루 전 성경책에서 보긴 했지만 평소에 열심히 했으니 엉터리 은혜가 아니고 은혜 가운데 열심히 하고 그래서 그게 또 은혜로 나타난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물론 따지자면 끝도 없지요. 설교는 안 듣고 한자 공부한 게 잘한 일입니까? 한자 성경을 갖고 다닌 것도 말씀을 보겠다는 겁니까 한자를 배우겠다는 겁니까?

내 삶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은혜는 꼭 논리적으로 설명이 되는 건 아닙니다. 시험을 치는데 생각이 안 나 답답하더니 속으로 “하나님!” 하는 순간 답이 떠올랐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대입 수능을 망쳤는데 정원 미달이 되는 바람에 입학한 사람도 있습니다. 열심히 사람 만나고 시간도 노력도 많이 들었는데 거래가 성사가 안 될 때도 있지요. 뜻밖에 쉽게 되는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부당한 혜택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억울한 면도 있고 또 어떻게 보면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그게 은혜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꼭 두 가지입니다. 첫째, 내가 은혜를 받았나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주 예수의 은혜가 내 삶에, 내 가정생활에 내 직장생활에 내 교회생활에도 깊이 스며들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은혜가 아니면 헛일입니다. 은혜가 아니면 사람이 알아주는 성공은 할지 몰라도 하나님이 알아주시는 열매는 없습니다. 그러니 기도해야지요. 내 열심을 위해 기도하고, 때로 힘들면 환경을 바꾸어 달라고 기도하고, 필요한 게 있으면 달라고 기도합니다. 가장 중요하게는 하나님의 그 은혜가 내 삶을 통해 드러나게 해 달라 기도합니다. 백 퍼센트 하나님 은혜임을 믿기 때문입니다.

둘째는 은혜 받은 내가 그 은혜에 걸맞게 열심히 사느냐 하는 것입니다. 가짜 은혜에 속으면 안 됩니다. 우린 다 은혜를 받았으니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열심히 살아야지요. 주일에는 교회에 와야 되고 평소 말씀도 보고 기도도 해야 되니 우리 삶은 안 믿는 사람보다 더 바빠야 됩니다. 하지만 그걸 핑계로 내 일을 하나님께 떠맡긴다면 그건 믿음도 아니고 은혜도 아닙니다. 최선을 다하고 끝까지 책임을 지는 그게 은혜 받은 사람의 바른 태도입니다. 잘 안 되면 따져 봐야지요. 내 책임입니다. 하나님을 원망하면 안 됩니다. 검토하고 분석하고 다시 도전해야지요. 잘 되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내가 수고 참 많이 했지만 하나님이 은혜로 내 속에서 역사하셨으니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은혜 받은 대로 열심히 하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한 만큼 열매가 있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내가 미처 못한 것, 실수로 빠뜨린 것까지 평소 주님을 사랑하고 열심히 살아온 나를 예쁘게 보셔서 챙겨 주시니 또 감사합니다,

그렇게 감사하면서 오늘도 은혜로 열심히 살아갑니다. (권수경 목사)